

산업보건인의 한사람으로



동일화성(주) 신 은 경

동일의 식구가 된지도 어언 한 햇수를 채우는 문턱에 와 있는 것 같다.

작은 세계속에서만 맴돌았던 내게, 짧다면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산경험을 얻었다.

신체의 제일 아랫부분인 발을 보호하는, 다른 사람들은 비록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신는 신발이지만, 책상위에는 항상 신발들이 놓여져 있고, 신발에 대해 연구하고, 또, 여러가지의 공정을 거쳐 나오는 것을 보고 놀라왔다.

그동안 많은 환자들과 부딪쳤다.

손이 재단기에 거의 잘린 상태로 온 아저씨, 구라인더에 찰과상을 입고도 매일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게 되어서 기분이 좋다는 아저씨, 머리가 아픈데 마이신(?)을 달라며 마이신을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는 아가씨, 거칠어진 손을 내미시고는 접착제독이 올라서 그렇다는 아줌마, 재봉바늘에 손톱을 찔려 울면서 치료 받던 17세 소녀등

이 모두가 평범한 우리 동일의 가족들이다. 이들의 아픔과 노력으로 완성된 이 신발들이 수출되고 있는 것이다.

하얀 건물속의 하얀 가운과 Cap을 쓴 간호원이길 원했지만, 집안사정으로 인해 조금은 시간의 여유를 얻을 수 있다는 의무실을 택하여 산업체간호원으로 막상 근무하다보니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진다.

의무실의 유일한 의료인이므로, 경험해 보지 못한 상담도 해오고 의사인 양 진찰과 해결책을 요구하기도 한다. 짧은 내머리속의 지식을 털어내어 설명해 주지만 갈수록 어려움을 느낀다.

올 봄에 받았던 보건담당자 직무교육이 떠 올려진다. 산업보건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증진하여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있고 또, 산업체의 보건담당자는 유해환경이나 인자들이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들로부터 유해환경을 멀리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했다. 이는 바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목표인 기업경영인들에게는 더욱 더 절실한 일일 것이며 그러므로 발전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의 나는, 동일인의 한사람으로서, 건강관리담당자로서 학교에서 배웠던 짧은 지식이지만 많이 연구하고, 건강관리담당자로서 천명이 넘는 동일인들과 더불어 생각하고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한 사람이고 싶다.